

숫구치는 기운 받GO! '불의 정원' 거닐GO!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른다는 해오름 직관터, 포항 호미곶. 우연이었지만 해가 바다에서 봉긋 올라올 즈음 상생의 손 손가락에는 어김없이 갈매기가 앉는다.

새해 해돋이 직관터 '포항 호미곶' 주변 볼거리도 가득

경북

희망찬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 이맘때쯤 많은 관광객들은 해맞이가 유명한 동해안 바닷가를 계획한다. 왜 해돋이 보러 가서 생고생을 하는지 현장은 답해준다. 해가 그렇게 활기차게 솟아오르는 줄 사진이나 영상만 보고는 알지 못한다. 수평선이 해를 낳는다. 돌아서 몇 발짝 옮겨 뒤돌아보니 벌써 해는 솟구친다. 오메가(Ω) 모양에서 붉은 경단으로 바뀌는 데 말 그대로 '순식간(瞬刻間)'이다. 짧은 타이밍 놓칠세라 두 팔 한껏 벌려 아침을 깨우는 그 기운을 받는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른다는, 엄밀히 말해 동해안 바닷가 어디에 서나 보이는 것과 불과 몇 분 차이로 이르고 늦고를 다투는 해오름 직관터, 이곳은 포항 호미곶이다.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기암괴석 손짓...구룡포 일본 가옥거리
포항은하 양쪽 미술관 앞마당 같은 '아트웨어'서 작품 감상
시민 휴식처로 돌아온 철숲길에 10년은 타오를 '불의 정원'

◇해돋이 직관

1월 1일 구룡포에서 신년 해돋이를 보고 싶다면, 여차피 텔레비전으로 재야의 종소리를 본다면 구룡포 인근에서 보는 게 좋다. 해돋이 광경을 매년 놓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당일치기로 다녀오려는 이들이 구룡포 주요 도로를 점령해 주차장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해돋이 광경은 사진이나 영상이 현지 직관(直觀)에 따라오지 못한다.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에 겨울 바다가 낳은 해가 솟구치면 온 우주의 기운이 직관자의 눈으로 서서히 스민다.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기운 같은 것이어서, 정말로 현장에는 두 팔 벌려 기운을 받으려는 이들이 꽤나 있다.

호미곶 일출 직관은 길어야 30분이다. 오전 7시 33분 전후로 해가 뜨니 8시면 출기도 출고 자리를 뜨고 싶어진다. 그제서야 바로 옆에 있는 등대박물관이 눈에 들어올 터.

운이 좋다면 등대박물관은 오전 8시에 문을 열어 줄지 모른다. 또, 구룡포 읍내에서 이색적인, 아니 애색적인 건물군이 눈길을 잡는데 일본인 가옥거리다. 적산가옥이 드문드문 200미터 가량 이어져 있어 일본인 관광객들이 신기해하는 곳이라고 한다. 날씨가 문제다. 기모노, 유키타 체험이 가능하긴 하다. 27년 전 최재성, 채시라 주연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촬영지로 활용되기도 했다.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은 꽤나 길다. 영일만을 끼고 동쪽으로 뻗은 동해면, 구룡포읍, 호미곶면, 장기면의 해안선 25km를 연결한다. 길이 아무리 좋아 해도 겨울 바닷바람 맞으며 생고생할 독자를 감안하지 않고 트레킹을 권한다는 건 무책임하다.

협한 절벽과 파도도 접근이 불가능했던 선바위에 서 하선대까지 800m 구간을 추천한다. 왕복 1.6km다. 목재데크가 설치된 산책로다.

오로지 바닷물이 해안절벽에 부딪치는 소리와 탐방객 자신이 걷는 소리만 들린다. 고요하고도 외로운 걸음이다. 적요의 시간은 기암괴석이 깨준다. 바다가 조각한 기암 작품은 부산의 명물이자 국가 지정공원이 이기대와 닮았다. 선바위, 남근바위, 여왕바위, 안중근 의사 손바닥바위, 고릴라바위, 하선대 등이 즐줄이 늘어서 있다.

'서 있는 바위'라는 선바위가 초입이다. 여러 지역에서 입암(立岩)이라는 한자 지명으로 발견되는, 솟은 바위의 계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괴한 모양의 자연지형은 '-처럼 보인다'는 식으로 작명 당하기 일쑤였다. 장군봉이나 뽕죽 솟은 것이 붓처럼 보인다는 문필봉은, 해성의 이름처럼 먼저 발견한 사람의 권위나 당대 세도가의 이름을 붙인 게 아니기에 보다 친근하다.

그런데 선바위 옆에는 있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필시 놓칠 것으로 보이는 바위가 있다. 하필 이름이 남근바위다. 발바닥처럼 보인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가웃거리다 보니 겨우 남근처럼 보인다.

하얀 바위 절벽은 험기라 불린다. 포토존으로 통한다. 선녀의 미모에 반한 용왕이 선녀와 만나게 해달라고 용왕상제에게 로비하던 스토리가 담긴 하선대까지 보고 돌아온다.

◇포항은하, 철숲길 그리고 불의 정원

이제 포항시내 차라다.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에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지나면 곧 형산강이 보이는 포항시내다. 얼핏 바다처럼 보이는 형산강변을 따라 북쪽으로, 영일대 방면으로 가다보면 이내 포항은하관이 나타난다. 죽어가던 동빈내항을 뚫어 연결한 운하다.

잘 정돈된 산책로도 자랑거리지만 웬만한 미술관 앞마당에 온 듯 설치미술 작품들이 즐줄 서 있다. 24개 작품이 죽도시장까지 이어지는 1.5km 산책로 양쪽에 도열해 있다. '포항은하'라는 이름에 가렸지만 '아트웨어'라는 이름이 따로 있다. 작품을 보며 걷노라면 조그만 배가 정시에 맞춰 지낸다.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에서 보던 풍경과 닮았다. 포항은하의 폭이 좀 더 좁아 아기자기한 느낌이다. 건너편 사람과 소리 지르지 않고도 의사소통할 수 있을 거란다.

죽도시장에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포항의 새로운 명소가 있다. 날이 차가워졌지만 포항시민들이 발바닥에 따나게 찾는 곳이다.

철길숲, 일명 '포레일'이다. 숲을 뜻하는 'Forest'와 기차길을 뜻하는 'Rail'의 합성어다. KTX 포항직결선 개통 덕분이다. 100년간 효자역과 옛 포항역을 잇던 철로가 휴식처로 돌아온 것이다. 효자역에서 이동고가차도까지 4.3km 구간이다. 열차가 지나던 자리를 사람들이 걷고 땀다. 조깅마니아들이 좋아할 직선 주로다. 간간이 왕복 2차로의 건널목이 튀어나오지만 잠시 멈춰다 건너면 될 일.

성모병원 앞에 이르면 기이한 풍경이 기다린다. 국내에서는 볼 수 없어선지 매일 봐도 질리지 않는다는 듯, 동물원 우리 속 들여다보듯, 산책로를 지나던 시민들은 기이한 풍경을 뻔히 들여다 본다. 이듬하여 '불의 정원'이다.

'불의 정원'은 온기인지, 가스인지 모를 하얀 연기를 거느리며 타오른다. 지난해 철길숲 조성을 위해 관경을 굴착하던 중 지하 200m 지점에서 천연가스가 분출했다. 관정 작업 중 올라붙은 불꽃은 금방 꺼지지 않았다. 앞으로 10년간 꺼지지 않는다고 한다. 연료로 경제성이 없었다는 결론이었지만 글썽, 관광자원으로 경제성은 충분한 듯하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매일신문 김태진 기자 jiny@msnet.co.kr



구룡포 일본 적산가옥.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불의 정원'

광주일보 江原日報 경남신문 경인일보
대전일보 每日新聞 부산일보 全北日報 제주신문

新韓日友誼報는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가 공동 취재·보도합니다.

2018-2019 신양파크호텔 겨울축제

기간: 2018.12.1(토) ▶ 2019.2.28(목)

<p>축제 1 객실 겨울 패키지</p> <p>객실 리모델링 기념 60% DC</p>	<p>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감사축제</p> <p>커피 3,000원 돈까스 코스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50,000원</p>	<p>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p> <p>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p>
--	---	---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